

월간 충현

교구성장의 달
2
1984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개도 주인집을 잘 지킬 책임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책임이 없겠는가? 사람의 가치는 그의 책임을 감당하는 데 있다.

2월은 '교구 성장의 달'이다.

교구의 성장을 위하여는 먼저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잘 감당하려면 또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또한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므로 구역과 교회가 베가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는 다음 세단계 결심이 있어야 되겠다.

첫째, 나부터 결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부터가 아니라 나부터이다. 어느 부자집의 사나운 고양이 때문에 매일 회생의 제물이 되어가는 쥐들이 모여서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 자구책이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고양이가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나서는 쥐가 단 한마리도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교회 성장목표는 『10,000세대 1,500구역』이다. 아무리 좋은 목표, 아무리 좋은 문제 해결방법이 있다해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기로 결정한 쥐들의 결정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성장 목표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나부터 내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나부터 내 책임에 충실할 때 가능한 것이다.

둘째, 지금부터 충성해야 한다.

무슨일을 하든지 “내일 하지, 내일은 되겠지……” 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어떤 작은 일도 성취할 수 없다. 우리에게 물론 ‘내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내일’이 있기 위하여는 오늘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 하루 뿐이라는 것을 잊지말고 지금부터 충성해야 한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이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갈라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지극히 작은자’에게 어떻게 하였나 하는 것으로 상벌의 기준을 삼고 있다.

교회는 가장 작은 수인 한 사람이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가 이루어진다. 초대교회를 보아도 큰 부흥회를 통하여 발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한 개인적인 전도의 결과가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였으며 마침끝에는 온 로마제국을 기독교국가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해서 언제 『10,000만 세대 1,500구역』이 되겠나?’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작은 일 같지만 각자 자기의 책임을 다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기 구역의 식구들에게 따우는 권찰의 작은 미소가, 개인이 벌이는 작은 전도운동이 넓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교회는 크게 성장할 것이다.

1984/2 · 차례

1972년 4 월30일 창간 제12권 제2 호 통권118호

- 2** 권두언 / 이 성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 4** 이달의 말씀 / 김 창인
권찰의 책임
- 6** 특집 I / 이 중운
한국교회 현실, 위기인가 기회인가
- 10** 특집 II / 데니스 레인
성경적 선교의 형태
- 13** 성경은 어떤책인가 / 빌리 그레함
- 14** 성경공부지도요령 / 성서유니온
성경공부를 어떻게 인도할까
- 17** 충현컬럼 / 손 경수
크리스찬 엘리트
- 18** 찬송가감상과해설 / 최 명룡
주 예수 대문밖에

- 19** 주교논단 / 정관호
천국과 일꾼
- 20** 수양회를 마치며 / 오 수경
섬기는 훈련이 필요
- 21** 교사수필 / 천 혜정 · 김 은희
늘 지켜주시는 주님
욕심 많은 교사
- 22** 지상특강 / 조영길
지혜가 주장하는 교회
- 24** 해외선교 소식
- 26** 교회소식
- 31** 1984년 충현교회 교역자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권찰의 책임

(이사야서 52 : 7 - 12)

권찰은 교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교인을 돌보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목회자를 돕는 순수한 목회협력자요 교회의 신경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구역조작은 더 복잡해지고 구역권찰의 임무는 더 많아지고 중요해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권찰이 하는 일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찰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1) 교인을 살피는 눈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구역의 교인 가정이 기도생활이 뜨거워졌는지? 성경을 상고하는 생활은 계속 하는지?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피 보아야 합니다. 또한 권찰은 자기 구역의 모든 가정 식구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믿는 식구도 있고 믿지 않는 식구도 있으며, 건강한 식구도 있고 병든 식구도 있으며, 칭찬 받는 식구도 있고 욕을 먹는 식구도 없지 않아 있을 터인데 각 가정들의 형편을 잘 살피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찰은 아침마다 구역의 식구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교인을 심방할 발의 책임이 있습니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권찰은 목사님을 대신해서 가정을 심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찰은 심방할 때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권찰은 자기 구역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살피 보아야 합니다. 더우기 어려움을 당한 가정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입의 책임이 있습니다

① 교인을 축복하고 위로해주는 입의 책임을 잘해야 합니다.

심방을 하다 보면 기쁨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았고, 자녀가 결혼을 하는 등 기쁜 일이 있는 가정은 축복해 주면서 같이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또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대할 때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한 식구들이 있는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몸이 약해서 병들었는지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랑과 정성으로 위로해 주면서 “예수님은 권세가 많은 분이로서 약한 자를 돌보시는 구주이십니다”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믿자고 권면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권찰이 성도들을 심방할 때 언제나 꼭 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사 52 : 7)”고 하는 말씀입니다.

권찰은 언제나 어떤 교인을 만나도 이것이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악마가 손을 못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찰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저를 다스려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자세를 거듭 가르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② 교회에 보고하는 입의 책임을 잘 해야 합니다

권찰이 교인의 가정을 살피다 보면 자기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즉시 구역 담당목사님이나 당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를 할 때에는 듣고 본 그대로 보고해야 하며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추측을 가감하면 안됩니다.

마치 파수병이 적군의 상황이나 아군의 움직임을 본 대로 보고하면 아군이 기습을 받을 일도 있고 어떤 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사52:7)

는 상관이 문책을 당할 수도 있을까보아 파수병이 자신의 생각을 적당히 첨가하여 보고한다면 이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수병이 듣고 본 그대로 보고하여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작전을 바로 수립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인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 때에 ‘교역자님이 알면 걱정하시겠지, 당회가 알면 치리하겠지?’ 하고 그 사실을 숨겨두면 그 성도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자신은 악마에게 이용을 당하고 교회는 훼손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찰은 구역 내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곧 교회에 보고 해야 합니다.

2. 권찰이 가져야 할 각오는 무엇입니까?

본문성경에 보면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였습니다

권찰은 먼저 높은 산을 올라갈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산에 오르려면 매우 힘이 들고 숨도 찹니다.

권찰은 자신이 올바른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생활은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또한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보살피려면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비탈길을 올라갈 땐 다리가 떨리고 아픕니다. 산마루를 넘어갈 땐 허리까지 아픕니다. 그러나 굶주린 양떼를 생각하면 참고 가야 합니다. 양떼들에게 하나 하나 복을 안겨 주기 위해서는 참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권찰이 심방하는 일은 참고, 참고, 또 참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참으면서 하는 일이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시간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또 심방을 하다 보면 자기 주머니의 돈도 써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까운 가정을 교회에 보고하여 구제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돈을 좀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찰의 책임을 바로 감당하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회장 목사님이 직접 심방을 가시면 “아이구 목사님께서 오셨습니까?”하면서 교인들이 환영을 하지만, 권찰들이 찾아가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가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찰이 없는 시간을 내어 다리가 아프도록 찾아갔으나 환영이 없으면 섭섭합니다.

사랑하는 권찰님들이여, 그렇더라도 그 가정을 보고 “사람이 뭐 그 따위가 있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으며 친절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총현의 성도들이여,

목사님이 오실 때에 환영하셨다면 목사님보다 더 수고한다고 할만한 권찰들이 방문했을 때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3. 권찰의 일을 잘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사52:7)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달력을 얻느니라”(딤후3:13)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

사람이야 알아 주든지 말든지 권찰이 일을 잘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권찰님들이 심방을 잘 해서 한 가정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키워주고 권찰이나 구역장님들은 매일 한 번 이상씩 자기 구역의 식구들을 위하여 축복기도해 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역이 날로 부흥 발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 창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이 중윤 목사
(아세아 연합신학원 교수)

한국교회 현실, 위기인가 기회인가

□ 교회성장이란 무엇인가?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시라고 하신 고린도 전서 3장 6절의 말씀은 비록 사람이 전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셔야만 교회는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교회성장은 천히 하나님께서 하시되 사람에게도 맡겨진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내적성장(Internal Growth)

내적성장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밀접해지면서 성도들 간의 대인(對人) 관계도 점차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내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고난과 핍박중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는 교회(행2:43, 골1:24), 위선이 발붙일 수 없는 순결한 교회(행5:1-11),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바른 신학을 가진 교회(행3:14), 교회연합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는 교회(고전12:14), 견고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약속의 소망을 가진 우주적인 교회(행11:23)이다.

2. 양적성장(Expansion Growth)

양적성장이란 복음전도를 통한 교회의 숫적성장을 말한다. 초대교회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행1:15)을 비롯하여 오순절에는 삼천명이 회개하여(행2:41) 돌아오고 날마다 그 수가 증가되어(행2:47) 여자를 제외하고 오천명(행4:4)이나 모인 대형교회를 이루었다. 이처럼 교인수가 급증하여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때에는 유대인 중에도 신자수가 수만에 달했다. (행21:20)

이처럼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양적부흥에 크게 관심을 가짐으로 질적성장과 양적성장은 병행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3. 연장성장(Extension Growth)

연장성장은 타지역 또는 타문화권에 개척교회를 세우거나 또한 선교활동을 포함한 복음확장운동을 말한다. 예루살렘에서 시작 된 복음운동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갔으며 수리아의 안디옥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복음을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에베소와 로마에까지 계속 퍼져나갔다.

이같은 지리적확장 뿐만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포괄하는 전체성(Wholeness)이 연장성장원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적·문화적·인종적·국가적·심지어 종교적 장벽까지 뛰어넘어 복음은 확산될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요청되는 것이므로 개교회나 개교단 중심적 확장보다 훨씬 크고 넓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 한국교회는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현대 한국사회는 '개발'과 '근대화'라는 두 단어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전자는 주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변동을 뜻하며, 후자는 경제성장을 포함한 사회제도의 전반적인 조직과 기능, 문화적 생활면 전체의 변화를 뜻한다. 지난 20년간 한국사회는 국가적차원에서 급진적개발과 급격한 경제성장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심층구조에는 경제성장제일주의 사상이 팽배하여 여기에 부응한 제분야의 기계화, 공업화, 도시화, 대형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남으로 이같은 가치관이 교회까지 파급되었다.

이같은 영향으로 가치적이고 양적팽창 일변도의

성장을 강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이같은 짐을 지적하는 이유는 오히려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우리의 격언과 같이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장점을 덮어두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급성장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치유책을 제시함으로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숙한 교회로서의 길을 걷기 원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문제와 해결을 거울삼아 겸손히 한국교회 일면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다.

□ 초대교회 성장에 비추어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그 치유책

1. 초대교회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근거한 개인주의에 빠져 있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개교회의 대형화경향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의 대형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개념을 상실하고 개교회주의에 빠져 이웃교회나 나약한 교회를 돌보지 않는 데 있다.

특히 근대화에 따른 농민의 도시집중에서 오는 결과는 농어촌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한국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인 지금 농어촌과 광산촌의 기독교인은 불과 5%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개교회의 확장과 편리만을 추구하는 도시교회의 개교회주의 병폐가 얼마나 크게 파급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같은 개교회주의는 도시내에서도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웃 교회나 약한 교회를 형제교회나 한몸된 지체교회로 대하기 보다는 경쟁의식이 지나쳐 적대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아직도 교회 밖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교회들이 계속 성장을 위해 힘써야하며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임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성장을 위한 방법이 문제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성장원리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목적을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경제성장의 슬로건이 그대로 교회성장 원리에까지 도입되어 오늘의 한국교회는 갖가지 열병에 신음하고 있다.

이것의 치유책은 무엇인가? 바른 교회관이 정립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나라 확장에 협력하는 동역자적 의식이 있어야겠지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행1:4:2:1)

저들이 모임으로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교회성장을 성령님께서 주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2. 초대교회는 마땅히 강조되어야 할 것보다는 오히려 주변적인 것을 강조하는 위기에 직면 했었다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받으라고 하는 천국복음이 선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기 원했으며 정치적 자유와 세속적 권세를 얻는 일이 중요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메시아에 대한 오해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기대도 전혀 어긋난 각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초대교회의 위기였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해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보다는, 개인의 세속적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행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시인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기복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다. 구약에 가득 채워진 축복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세상의 물량적 충족만을 의미함이 아니다. 그것은 구약성경 전체가 그러하듯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며 그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 안에서 축복의 약속과 분배가 마치 어느 특정 목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천국복음을 강조해야 할 교회의 강조점이 빗나간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하에 이원론적 사고에 근거한 소위 교회일만이 거룩하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은 세속적이어서 멀리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초대교회는 무서운 박해에 직면해 있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과 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다. 제자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다.

박해는 이처럼 외형적 위협과 고난을 통하여 오는 것이 상례지만 때로는 내적으로 조용히 소리없이 오는 유혹도 피하기 힘든 박해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돈이다. 외형적인 박해가 한국교회에 왔다면 목숨걸고 싸울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불행하게도

보이지 않는 내적핍박 앞에서는 오금을 못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내적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모든 일에 절제하며 하나님 중심의 생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

4. 초대교회는 가건적인 주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당분간 혼란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야 그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아직도 보이는 신앙 즉 종교적신앙에 집착한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 오신 성령님의 역사를 오히려 흐리게 하는 무서운 과오를 범할까 두렵다. 몇 십만 몇 백만이 모이는 대규모집회나 기도원운동, 금식기도, 철야기도운동은 교회부흥에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성령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일종의 붐을 조성하는 전시적효과 보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고 그 말씀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는 한 교회는 계속 혼란과 비리에 빠질 우려가 있다.

갈렐화복을 예언하고 병자를 고치며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성경의 교훈과는 다르다.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어진 성경말씀 계시만을 따르는 바른 성령관이 우리 교회안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5. 초대교회는 조직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질서를 위한 조직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고 일의 분담을 위해 집사직과 장로직이 세워졌다. 이때 사도들은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움으로 교회를 치리하게 했다.

오늘의 한국교회 안에는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조직이 가져오는 병폐 또한 심각하다. 교회의 직분을 하나의 계급으로 보는가 하면 그같은 계급을 메 관념적까지 하려는 슬픈 현실이 점차 만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에 대한 물어해 내지는 모독하는 태도 역시 오늘 한국교회 안에 부식되고 있는 현상이다.

목회자의 임직으로부터 시작하여 장로선출 및 목사의 노화현상 등은 모두가 제도적문제임에도 불구

하고 한국교회는 교회의 평안과 안일주의에 빠진 나머지 구조적모순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생각해 왔다. 오늘 우리교회는 인간의 제도보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초대교회는 자기동일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저들에게 닥쳐오는 심한 박해와 비판의 소리는 타협 아니면 굴복을 강요당하는 무서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하는 세대와 우상 숭배를 배격하였고 유대주의라는 전통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만 따르며 그 말씀에만 충성하였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금주·금연·축첩을 반대하거나 사회의 불의에 항거하는 것은 결코 분리주의자가 되어서 그런게 아니다. 또 샤마니즘이나 유물론의 타종교에 대해 비판과 혼합을 거부하는 것은 배타주의자가 되어서 그런게 아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질을 상실해서 안되며 기독교의 본질을 누구에게도 타협할 것을 강요당할 수도 없다. 한국교회 안에 타종교와의 대화라는 구실아래 서서히 침투하고 있는 혼합주의 또는 통일종교등은 모두가 기독교의 본질을 위태롭게 하는 독소이다.

7. 초대교회가 당면한 위기는 위선, 즉 거짓이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앞에서 저주를 받은 것은 위선자가 교회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진리이다.

신앙과 신학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점차 한국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양의 가죽을 쓴 이리처럼 자기 치부를 하고 있는 교역자가 늘고 있다면 심판전야와 같은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주일을 제외한 다른 날들은 나의 날이며 교회 갈때만 신자가 되는 파트타임 신자는 진실을 배워야 한다. 성경대로만 살아가는 뭐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현대인들의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형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위선자를 배출한 원인이기도 하다. 겉으로만 교회생활을 잘 하면 올바른 신자인줄 착각하고 있는 신자는 곧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 위선자인 것이다.

8. 초대교회는 심한 편견에 빠져 있었다

자기대로의 병고치는 경험, 전도하는 경험,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경험 등 그들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독선과 아집에 빠지게 되었다. 베드로가 욕바에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것은 좋은 예다.

한국교회의 편견은 지방색과 인맥이다. 이같은 편견은 무지와 교만의 소산물이다.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의 편견은 무너져야 한다. 오늘날 교파간의 장벽은 교리적 차이보다는 감정과 이해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처지와 경험을 중시한 결과이다.

9. 초대교회는 우선권(Priority)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사도들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순종했다. 그들은 양보다 질을 우선했으며 구제하기 전 권능을 받았고 일시적인 것 보다는 영원한 것에 헌신했다. 저들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였으며 이론보다는 역사적 사실 위에서 움직였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우선해야 할 것을 알아야겠다. 구제, 선교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며 축복도 받고 사회봉사도 해야겠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며 그의 몸되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며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봉사가 있어야 한다. 교인에 대한 과잉보호나 과잉칭찬은 하나님 앞에서 보다 사람 앞에서 일하게 하며 교회밖의 소위 복음운동이 교회와 무관한 선후가 바뀐 사례는 교회안에 가득차 있다. 우선권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사활문제라고 본다.

10. 초대교회는 전략상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주님은 양적확장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질적성장의 중요함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새자들은 두가지 중 하나를 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적성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항상 질적성장과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를 잘 조화있게 발전시켜 나가려면 내 기쁨이나, 감정이나, 이상에 근거한 것이 아닌 생명의 권능으로 믿을 안에서 사랑으로 희생하는 생활원리를 가져야 할 것이다.

11. 초대교회는 지도자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훌륭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닥치자 많은 성도들이 떠났으나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다. 저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했고 헌신적 정신과 깊은 책임의식을 가진 지도자들이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욕심 없는 태도와 희생정신은 오늘날 교권쟁탈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짓 지도자들에게 큰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교회가 해야 할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연합정신이 투철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복음에 대한 절대신념을 갖고 소신껏 용감하게 일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고상하고 큰 꿈을 가진 폭넓은 지도자들이었다.

한국교회는 신학교의 수나 목사의 수가 많은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지도자와 같은 참된 지도자가 적다는데 있다.

12. 초대교회는 성장하는 중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면 부지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음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좀먹는 씨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비성경적인 것을 찾아내어 교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비대하다 보면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 주는 자의 생활이 결여되기 쉽다. 또 성장한 자는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기 쉽고 하나님 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기 쉽다.

이같은 현상은 자연적으로 스스로 망하는 길에 떨어지니 이미 서구교회가 걸어갔던 슬픈 역사를 한국교회는 재연하지 않기만을 기도한다.

□ 맺음말

오늘의 한국교회가 치한 위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위기라기 보다는 우리에게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과 위기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며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며 절대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을 절대권위로 받아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교회와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것이다.

성경적 선교의 형태

*본 강의 내용은 제 3 회 중현세계선교세미나 에서 실시 된 것이며 오치용 목사님께서 정리한 것입니다.

데니스 레인 목사

지난 100년동안 선교는 급속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인구도 급증했고 인류의 거의 절반이 지난 100년간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도 갖게됩니다. 이런 때에 한국은 복음선교를 받은지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23년동안 오·엠·에프(O·M·F, 해외선교회)에서 일해왔습니다. 원래 중국대륙에서 선교하던 중국내지선교회(China Inland Mission)가 중국이 공산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일원을 대상으로 선교하게 되면서 해외선교회로 개칭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해외선교회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타이완,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933명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8개국에서 파송되었고, 그중 60명은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파송되었습니다. 여러 교파의 선교사들이 협력하는 국제적선교단체에서 종사해 본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선교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성경적 형태가 성경 곳곳에 계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르면 선교는 성공할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이 점에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1장 8 절에서 발견되며 이 곳에서 계시된 원리는 성령께서 선교하신다는 것입니다.

1. 선교의 근본원리—성령님의 사역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성령께서 선교의 주인공이 되심을 사도행전은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선교는 할 수 있으며(행 1:8), 복음이 확장되는 것도 성령님의 계획으로 되어집니다. 스테반의 순교이후 복음은 사마리아에 전파되었는데 이 역시 사도들이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강제로 내 몰으셨기 때문에 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는 선교를 명령하고 선교사를 파송시키기도 하시지만(행 13:1-), 그 가는 길을 막고 바울을 드로아에서 마게도나로 가도록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행 16장) 이와 같이 선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몇년전 해외선교회(O. M. F)는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캄보디아 정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회답이 없었습니다. 해외선교회는 매 3년마다 여러 곳에 흩어진 지도자들이 싱가포르에 모여 집회를 갖는데 최근 캄보디아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선교사 파송여부를 논의하는 그 장소에 해외에 있다가 캄보디아로 귀국중인 한 캄보디아인이 회의장소에 나타나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장소에, 바로 그 지역 사람이, 마게도나인처럼 바로 그 요구를 하는 것이었다. 선교는 이같이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2. 선교의 구체적원리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는 선교에 대해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몇가지 구체적 원리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사도의 선교단이 수행한 선교의 원리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팀(Team)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앞서 보내셨는데, 안디옥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같이 떠났습니다. (행13장). 그후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어질 때도 그들은 다시 다른 팀을 이루어 일했습니다. (행15장36-41절) 오늘날에도 선교는 팀을 이루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태국에 선교사를 보낸다면 두 팀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태국인으로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국은 불교국가이므로 태국인이라면 곧 불교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했다면 믿은 이후의 문제가 더 큼니다. 따라서 신자들의 관리·양육이 큰 문제로 대두되므로 선교사는 새로운 전도에 힘쓰기 곤란해집니다. 따라서 한 팀은 양육을 맡고, 다른 팀은 다시 전도를 맡는다는 계속적인 선교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삿포르의 경우에도 오·엠·에프는 같은 선교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복음이 접근하기 좋은 곳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리적으로 뿐 아니라 여러가지 면에서의 의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후 곧 도착한 곳이 구브로인데(행13:4) 이곳은 바나바의 본고향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교회가 어디로 가라고 하지는 않는 듯 합니다. 그 그룹이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선교는 선교현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엠·에프도 이 같은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본부를 상해에 두었습니다. 오·엠·에프는 지금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이하여 선교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선교지는 잘 아는 곳을 일차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 교회는 일본을 주요 선교지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

은 1억1,700만 인구인데 그중 100만명이 신자입니다. 1억1,600만명이 예수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대만은 3분의 1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30세 이하가 대부분인데 저녁에는 할 일이 없어서 방황하며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곳부터 속히 선교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예컨대 행 13:14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리라”, 행 14:1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원문에는 “전과같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같이 바울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회당에서 부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안식일”을 활용하였고(행17:2) 이처럼 유대인이 회당을 갖고 있고 구약을 믿는 것을 바탕으로 그의 복음사역을 쌓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지의 상황을 잘 살피고 본토에 있는 교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 역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원리입니다. 교회는 각 문화권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데 여러분들은 마루바닥에 앉아서 듣고 계십니다. 만일 제가 영국에서 영국교인들에게 마루에 앉아서 강의를 들으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교파교회라도 그렇습니다. 성공회는 영국에서는 큰데 한국에서는 작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성공회교회는 영국의 교회와 또 다릅니다. 미국에는 46개의 침례교회단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작은 교단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6000개의 서로 다른 교파가 있습니다. 만일 이 모든 선교단체가 싱가포르같은 작은 지역에 저마다 자기 교파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단체가 자기교단 세우는 선교를 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교지역에 이미 교회가 있으면 서로 협력해야 하고, 서로 다른 교

파 선교사라도 그곳에서 서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오·엠·에프는 이같은 선교사들의 협력단체입니다.

네째, 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서도록하고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행 14장 20절 이하에 보면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들이 생기면 그들을 격려하고 굳게하며 경계도 하면서(21, 22절), 그 교회들을 위해 장로를 세운 후에는 “저희를 그 믿은바 주께 부탁하고”(23절), 그곳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방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주관치는 않았읍니다. 고린도교회도 어려운 문제가 많았지만 그 교회를 장악하거나 통치하지는 않았읍니다. 다만 선교지의 교회형편에 따라 융통성도 있었읍니다. 구브로에서는 지방장관을 진도하고 그를 세우기도 했읍니다. 선교지의 사람들의 계층과 분포를 살피고 동류의식을 갖는 사람들끼리 모아 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만의 공장직공들, 방콕의 창녀들, 이들에게도 적절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교사는 각 계층의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만은 선교사입국비자발급시 세가지 자격을 요구합니다. 즉 ① 2년이상 선교이외의 분야를 공부한 경험 ② 2년이상의 신학교육 ③ 2년이상의 목회경험을 정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곳곳에 교수, 기술자등으로 보내야 하므로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기술자로서의 경우, 사우디아에서는 한국노동자의 인기가 높습니다. 사우디아에 선교사자격으로는 못나가도 근로자로는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기술수준이 높은 한국근로자가 선교를 위해 나간다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 우호적인 국가들을 선택해서 선교해야 겠읍니다. 우리에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호적인 국가를 통해 선교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에는 중국본토에서 유학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전도대상이요 좋은 전도환경에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

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교사들의 본교회와의 관계는 어떠해야합니까? 사도행전13장 2절에서 선교사는 본 교회에서 파송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읍니다. 14장 27, 28절에 와서 본 교회에 상세히 보고한 것을 봅니다. 바울의 선교단은 본교회와 밀접히 관계를 가지면서도 선교단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참가자를 결정하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었읍니다. 오·엠·에프는 이 원리를 적용하였읍니다. 선교사는 지역별로 팀을 이루었고 중요한 문제는 그 팀에서 결정합니다.

선교지교회에 대한 원리는 항상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 선교사들의 협력과 판단을 존중하고 현지교회의 자립적성장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선교지교회의 자체적 성장을 돕는 일과 관련하여 물질(돈)의 사용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사역에 금전관계는 별 언급이 없습니다. 그중 안디옥교회가 돈을 예루살렘에 보낼 때 바울과 바나바에게 위탁하여 보낸 것을 보면 그 돈을 책임있게 쓸 사람을 선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돈은 사람을 따르게도 하나 증오감을 일으키게도 합니다. 돈은 상하관계를 만들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 믿는 초신자에게 물질적인 일로 부담되지 않도록 애썼읍니다. 선교지의 교회에 돈을 줌으로써 그 교회가 성장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지교회와 동등함을 갖도록 해야하며 돈은 이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써야 할 것입니다. 오·엠·에프는 대부분이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안디옥교회는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졌읍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단에는 평신도도 가입시켰읍니다. 물질은 이들 평신도를 통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테일러도 평신도를 가담시켜서 중국대륙선교를 했고 그곳에 오늘날까지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

데니스 라인 목사(Rev. Denis Lane)는 O. M. F.의 국제본부 해외담당 총무로서 한국에서는 ‘강해설교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빌리 그레함 목사

오늘날 수백만의 사람들이 권위를 가진, 믿을 만한 소리를 듣고자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하고도 참된 권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성품, 세상적인 문제와 인간의 고통에 빛을 비추어 주며, 이를 넘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명백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성경의 메시지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14:6)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다. 그것은 구원의 이야기요, 생명과 화평과 영원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들의 신앙은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적인 진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신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위대한 전통과 장엄한 상속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수 백년 동안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의하여 쓰여진 66권의 책들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영감에 의해 기록된 이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통일성을 이루는 하나의 이야기로 일관하고 있다.

성경은 비록 오래된 책이기는 하나 이 책은 항상 새로움을 주는 가장 현대적인 책이기도 하다. 우리들 중에는 성경과 같은 오래된 책은 현대인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난 25년 동안에 인간이 개발한 지식이 그 이전의 전 세기를 두고 쌓아올린 지식을 합친 것 보다 많은 과학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성경과 같이 오래된 책은 시대 착오적인 책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럼에도 이 책은 성경을 읽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들의 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책으로 남아 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내가 여기 서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의 실존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등의 생명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만 가능하다.

오늘날 우리네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

한 문제 중의 하나는 권위의 기초근거로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성령에 의존하여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채우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학자요,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바 있는 「윌리엄·L·펠프」 박사는 다음과 같은 자주 인용되는 말씀을 피력하였다. “나는 젊은이들에 대한 대학교육의 필요성을 철저히 믿는다. 그러나 성경이 없는 대학교육보다는 대학교육이 없는 성경지식을 더욱 값진 것으로 믿는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의 하나는 성경이 열려진 책으로서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두거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치 않고 읽음으로써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닫혀진 책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개인이나 국가에 있어서 성경을 읽지 않고 방치해 두거나 영생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입술로 섬기는 그러한 행위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것이다.

인류를 위한 가장 유효하며 위대한 문서로서의 성경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읽히우고 믿게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의 한 조사보고서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의 12%만이 실제로 매일 성경을 읽고 있으며 34%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읽으며 그리고 나머지 42%는 간혹 한번 정도 읽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비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성경공부를 어떻게 인도할까?

그룹성경공부(Group Bible Study)는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그룹으로 나누어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룹성경공부는 성경공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통한 삶에서의 체험을 함께 나누는 성경공부의 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그룹성경공부의 특징은 강의가 아니고 토의라는 것이다. 사회자는 가르치려는 자가 아니라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많은 수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7, 8명 이하가 적당하다.

구역성경공부의 인도를 맡고 있는 구역성경공부 교사들을 위해 한국성서유니온에서 발행한 “그룹성경공부 지도요령”이라는 소책자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실기로 한다.

I. 그룹성경공부 지도의 기본원리

1. 왜 그룹성경공부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배워야만 한다. (벧전 1:23; 롬10:14; 벧전 2:1,2)

설교를 듣고 성경을 그제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말씀을 깊이있게 음미하며 생활에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혼자 공부하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서로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의 체험을 통한 간증을 듣고 큰 자극과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성도간의 올바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 안에서 의지체와 사랑의 교제가 하나됨을 알 수 있게 된다.

2.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성경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흥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주 실용적이라는 것을 알게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면 좋다.

① 해석-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② 설명-하나님의 근본 의도가 무엇인지, 본래

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③ 적용-그 의미를 현재의 내 생활에 적용한다.

성경공부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찾기 위함이지, 결코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견해나 이념을 찾아내기 위함이 아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관시켜 공부해야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바르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배경이나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려는 태도보다는 평범한 의미라 하더라도 나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원리를 찾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성경을 올바로 깨닫기 위하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II. 그룹성경공부의 사전준비

1. 먼저 기도가 필요하다

인도자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가능하면 일일이 이름을 들어 모인 사람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성경 공부 시간이 모인 모든 사람에게 살아 있는 말씀의 교훈과 역사가 되도록 기도한다.

2. 성경을 읽는다

다른 번역판이나 영어성경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을 우선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여야 적용할 수 있다.

3.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의 준비

인도자는 모인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에 대하여 각자 생각할 수 있는 고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막연하거나 애매한 질문보다는 구체적이고 쉽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좋다. 아울러 첫번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조금 더 쉬운 보충적인 질문을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Ⅲ. 모임 장소와 시간에 대한 준비

인도자는 반드시 시간 전에 와서 공부할 장소를 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실내분위기를 위해 조명, 온도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실내 온도가 더운 것 보다는 약간 낮은 것이 공부에는 효과적이다.

좌석은 모인 사람들이 모두 잘 볼 수 있도록 원형으로 둘러앉는 것이 좋고 인도자는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앉도록 한다. 그러나 인도자와 모인 사람과 소외감을 갖도록 유별나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

준비물로는 칠판이 있으면 더욱 좋고 그림이나 슬라이드를 준비해도 좋다. 그리고 처음 오는 사람을 위해 늘 성경의 여분이 있어야 하며 공부를 마친 후 간단한 다과로 친교를 나누도록 하면 더욱 좋다.

Ⅳ. 처음 온 사람에 대하여

그룹성경공부에 처음 온 사람이 있으면 먼저 인사를 나누고 여러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거나 본인이 소개하도록 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신앙경력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래야 성경공부를 유도할 수 있다. 새신자일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 온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과 친근해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Ⅴ. 그룹성경공부의 진행

1.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시작한다

‘아직 다 모이지 않았으니 더 기다리자’는 제안이 있어도 정시에 시작해야 모든 사람이 정시에 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연락을 하여 시간을 엄수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급적 모든 사람이 약속시간 보다 10분정도 먼저 와서 기도를하며 준비하도록 훈련시키면 효과가 있다. 인도자는 언제나 솔선수범하여 시간을 지켜야 하며 자주 늦는 사람은 적당한 임무를 맡기어 훈련시킬 수도 있다.

2. 먼저 기도로 시작한다

성경공부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시작 기도는 간결하고 단순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모인 모든 자들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잘 깨닫게하여 달라고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구한다. (시119:18)

기도가 설교가 되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한다든지, 누구의 단점을 들춰낸다든지, 그날의 토의문제등을 미리 언급 하는 것은 좋지 않다.

3. 성경 본문을 읽는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 사람이 한두절씩 돌아가며 읽거나 극적인 장면을 극적효과를 살리면서 읽을 수도 있다. 인도자와 다른 사람이 서로 교육하는 것은 좋으나 한 사람이 한절씩 돌아가며 읽는 방법은 자기가 읽을 구절에 신경쓰다 보면 문장 전체의 대의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성경의 어떤 책을 새로 시작할 때는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그 책의 개요를 설명한다.

4. 성경 본문의 뜻을 살린다

본문에 충실하면서 의미를 찾아내도록 하고 본문 밖으로 빛나가 이론적으로만 지나치게 열을 올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항상 본문의 교훈에는 실제생활에 응용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인 전체에게 적용할 수 있음을 생각하여야 한다.

5. 본문 해설이 끝난 뒤에는 토의를 한다

인도자는 모든 사람이 자발적이고 또 공평하게 견해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올바른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점을 강조한다.

한가지 문제를 가지고 토의가 너무 길어지면 ‘후에 더 연구해 보자.’고 말한 후 일단 그 문제를 요약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본문과 벗어난 발언을 할 때에는 본문중 몇절에 마음을 두고 발언하는지 부드럽게 물어봄으로써 주의를 주도하도록 하자.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을 리더에게 질문해 보면서 자신의 의사발표를 꺼리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되묻고 가급적 인도자

가 해답을 주는 일은 피하자. 인도자는 어디까지나 사회자이지 지도교사가 아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남은 문제가 많을 때는 나머지 문제의 윤곽만을 정리해 놓고 끝내면서 각자 집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나머지 문제를 숙제로 제시할 수도 있다.

의견일치가 잘 안될 때에는 서로 다른 관점만 요약해 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으며 성경공부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에는 몇 사람에게 사전에 준비해 두도록 한다.

때로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어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때에는 그 문제 자체에 중점을 두지 말고 성경공부의 앞뒤 연결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토록 한다. 그것도 어려우면 연구시간을 충분히 갖거나 강사를 초빙하여 해결한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공부 준비를 해온다면 더욱 유익해진다. 하여튼 최소한 본문만이라도 읽어오도록 해야 한다.

6. 어떻게 끝낼까

성경공부가 끝날 때에는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만약 시간안에 그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그 질문을 다루라.

때로는 그날 공부한 것을 한 사람에게 요약해 보라고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 풀어서는 안된다. 특히 인도자가 주의할 것은 인도자 자신의 생각을 전체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

최종적 요약은 그날 공부의 제목과 연결짓는 것이 좋다.

7. 마칠때는 시작처럼 꼭 기도로 마쳐야 한다

공부중 깨달은 교훈에 따라 기도하되 새신자들이 아닐 때에는 묵상기도나 통성기도도 좋다. 아주 적은 수일 때에는 차례로 돌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고 짧게 기도하도록 한다. 그러나 수가 좀 많으면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기도하면 새신자에게 기도 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미리 기도제목을 주어 기도하거나 주기도문으로 끝낼 수도 있다.

8. 약속시간대로 정확히 끝마친다

끝나는 시간이 정확지 않으면 시작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정시에 끝마치려면 어떻게 할까?

끝나는 시간을 미리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늦게 시작했어도 정시에 마쳐야 한다. 인도자는 신속히 진행한다. 인도자는 약속시간 보다 10분 일찍 끝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항상 기도나 찬송등으로 여유 있게 끝내도록 하고 토의가 길어질 때에는 토의를 중단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한다. (*)

*인도자의 자세, 어려운 문제점들, 훈련등에 대하여 더 아시고 싶은 분은 성서유니온 발행 '그들 성경공부 지도요령'이라는 소책자를 참고하십시오.

성경공부하는 기쁨

박 병 은

저는 1975년에 충현교회에 등록한 이후 서리집사, 구역장의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성경공부 하는데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예배만 드리면 교인의 책임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지난 해 9월, 저는 우연한 기회에 타의에 의하여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성경공부를 하고 보니 '참 재미있다. 다음 주일에 또 가야지.' 하는 결심이 서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씀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재미있는지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또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주일 성경공부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 공부한 성경말씀이 한 주일 동안 살 때에 큰 힘이 되

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이기에 이렇게 마음에 찔리고 감동이 되는 귀한 말씀이라 느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죄인도 진리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충현교회 10년동안 다닌 교인이었지만 '10년동안 성전의 뜰만 밟고 다녔구나. 10년동안 헛다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현교회는 어린 영아부부터 소망부예에 이르기까지 각기 알맞는 부서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디 저와 같은 신자는 한 분도 안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소개합니다.

크리스찬 엘리트

손 경 수

최근 우리는 교리보다는 프로그램을, 설교보다는 봉사를, 그리고 상담과 친교에 더욱 치중하는 경향으로 치닫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면서도 우리가 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행위가 우선순위로 취급되면 교회생활에서 인본주의적 형태로 전락할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언제부터인지 기독교인들은 주일성수(聖守)에 대한 바른 개념이 희박해지고, 습관적 교회참석으로 나타내졌는가 하면, 주일 하루가 성수되기는 커녕 오히려 여느 날과 똑 같은 생활을 되풀이 하여 신자다운 생활에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매매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오락, 레저에 휘말려 1시간 예배드린 이후 등산·낚시·스포츠, 기타 행사 등에 참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식당에서 음식 사먹는 일은 예사이고 다방이나 전자오락실에서의 휴식 및 여가선용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경건생활에 금이 가고, 신자가 신자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主日)을 성수키 위해 평일의 몇배 노력은 물론 사전준비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깨끗케 했는데, 요즘의 일부 교인들이 신앙선배들의 좋은 경건생활에 먹칠을 하는 기현상이 노출되고 있다.

또 초대교회 시대엔 「사랑」이 넘쳐 교회가 부흥하고 신자들간의 코이노니아가 활발했는데, 최근의 교인들은 자기에게 이익 여부를 따라 형식적 「사랑」을 나누고 있음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어떻게 한치의 「허」로만 앵무새처럼 「사랑」을 난무하는가? 자가를 희생하는 헌신도 없이 남의 눈치 살피며 입술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

남의 아픔을 내가 수용해서 같이 고통을 느끼는 진실한 사랑을 내재할 수 없는 것일까? 그래서 소외된 계층에게까지 관심을 쏟고 예수의 사랑을 심어 보는 풍토가 그리워진다.

컴퓨터와 유전공학이 판치는 현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의식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잘못하다간 하나님의 창조원리가 무색해질 만큼 인간의 교만이 세상을 시끄럽게 할 날도 멀지 않았다.

너무 인본주의에 치우쳐 참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생명의 진리, 말씀의 실천화가 제약받을 때가 올 것 같은 기분이다.

이제 경성할 때가 다가온 것 같다. 주저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두꺼운 벽을 헐어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갯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피 맺힌 절규와 기도가 약하신 주님모습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기셨기에 장사한지 사흘만에 무덤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은총이 있지 않았는가? 이 기쁨 때문에 세계 만민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령을 갖추지 않았는가?

성례를 외면한 친교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주님이 정하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언약관계를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

전도보다 상담(카운셀링)을 앞세우는 우매를 더 이상 노출시키지 말자. 생명의 끈, 줄이 없는 카운셀링은 인간이성의 잡다한 언어구사일뿐 구주의 보혈과는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숨겨진 하루가 진행되고, 기계화된 인간 생활양식이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다.

이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발벗고 나설 일은 생명구하는 일일전대, 말씀전파와 전도, 경건된 예배생활에 더욱 가까이 가야한다. 특히 분란된 아픔을 갖고 살고 있는 이나라 민족의 복음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우리를 채찍질 하고 있다.

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크리스찬 엘리트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는 것이다.

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크리스찬 엘리트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는 것이다.

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크리스찬 엘리트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는 것이다.

“주 예수 대문밖에”

-296장-

최 명 룡

〈제 4 부 찬양대 지휘자〉

이번 호에는 저의 생애에 가장 인상 깊었던 찬송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찬송은 특별히 지난 1980년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80년 민족 복음화 대성회에서 개회 예배시 부족한 제가 특송을 했던 곡으로서 가사의 흐름이 많은 은혜가 되어 평소 자주 부르는 곡이다.

그날따라 억수같은 비가 쏟아져 노천 광장에서 집회가 열릴 수 있을까 우려를 하며 여의도 광장에 갔었는데 이미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운집하여 비를 맞아 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있는 광경은 실로 장관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천간이본부석은 빗물이 새고 비바람은 몰아치고 주최측에서는 성회를 연기할 것인가 감행할 것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준비찬송부에서는 열심히 찬송 인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김창인 목사님께서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오셔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말씀하시자, 백만이 훨씬 넘는 성도들은 갑자기 조용해지고 곧이어 목사님의 인도로 통성기도가 시작되는데 폭포수와 같은 빗소리에 대항이라도 하듯 통성기도 소리도 점점 커져 가는데 그때의 그 기도의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은혜의 도가니와 같은 기도 소리가 그치고 초조하게(?) 기다리던 특별찬양순서가 되었다. 나 자신도 완전히 성령의 기운에 압도되어 감격하여 대한민국 방방곡곡 울려 퍼지는 찬송이 되길 기도하며 힘껏 이 찬송을 불렀던 것이다. 나 같은 성악인으로서 세상의 어느 화려한 오페라 무대라 할지라도 이 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그날 이후로 찬송을 대하는데 더욱 진지해지고 세상음악보다 찬송을 더 소중히

연구하고 전파하리라 다짐하였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 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인내하심 한 없는 덕일세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죄일세

이 곡은 일생을 빈민들과 가난에 시달리는 서민들로 부터 “빈민들의 감독”이라는 별명으로 사랑 받을 만큼 겸손하고 서민적으로 살았던 영국의 윌리엄 윌삼 하우 감독(Bishop William W. Haw, 1823~1897)이 “세상의 빛되신 예수(The light of the world)”라는 성화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그 성화 왼쪽에는 인간 영혼의 문이 보이는데 빗장으로 굳게 닫혀 있는 그 문은 못이 녹슬어 있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못자국 있는 손으로 등불을 들고 밤새도록 대문을 두드리시고 있는 것이다.

이 찬송시의 후렴 부분은 이 그림에 대한 간증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작사자는 이 곡외에도 60여편의 찬송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스틴·H·크네크트(Justin·H·Knecht, 1752~1817)의 작곡으로 된 이 곡이 가장 많이 불리운다.

천국과 일꾼

정 관 호 강도사
(교육위원회 주교담당)

충현교회에서 “천국 일꾼을 키우자”라는 표어를 내세운 것이 1962년 12월 16일이었으니 벌써 그 해수가 20년이상이나 되었다. 당시 이 표어가 단지 교육부서만의 한정된 표어가 아니라 충현교회 전체의 표어로 내세워진 것으로 보아 그 중요성이란 우리 충현교회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표어”란 그 실상이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지향해 나아가야 할 목표나 이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대부분 그 표어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뜻이 애매모호하거나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자기멋대로 해석해서는 안되는 성질을 지닌다. 왜냐하면 그 표어란 모든 구성원의 집약된 의지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관성있게 제시해주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충현교회의 “천국 일꾼을 키우자”라는 표어처럼 제 나름대로 이럴 것이라고 추측을 하면서 해석되어 온 표어도 드물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천국과 일꾼이라는 독립적인 단어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으나 천국 일꾼이라는 복합단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 그러한 일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첫째, 천국일꾼이라는 복합단어가 성경상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국일꾼에 대해서는 두 단어가 개별적으로 지닌 독립된 뜻을 잘 조화시켜 한 가지 의미를 지닌 내용으로 밝혀주지 않는 한 그 단어는 누구에게나 추측해석이 가능한 용어로 남게 될 소지가 늘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천국이라는 말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타나는 미래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천국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다. 대부분 강단에서의 설교가 미래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현재적인 측면의 천국의 모습이 사실상은 무시되어 왔다. “천국

일꾼을 키우자”라는 표어의 의미는 사실 천국의 현재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지 못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표어가 되어 버린다.

세째, 일꾼이란 말을 대체로 교회내의 봉사의 차원에만 국한 시켰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인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제외시키는 잘못을 범해왔기 때문이다.

천국이란 말은 1차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천국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내에서의 봉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 즉 전 삶의 영역과 삶의 자리에 그 영역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충현교회의 표어로서 혹은 충현교회 교육의 목표로서 “천국 일꾼을 키우자”라는 내용이 지닌 뜻은 매우 광범위하다. 그리고 그것은 충현교회가 이루어나야 할 교육의 목표를 매우 적절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태껏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을 “천국일꾼”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일꾼으로 키울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천국일꾼,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제한된 교회내의 봉사뿐만 아니라 개인·가정·학원·사회에 이르는 삶의 전 포괄적인 영역이 되도록 우리의 천국일꾼 양성의 범위는 넓혀져야 하리라 본다.

주교교사 교육안내

- 교사재훈련반 / 매주 목, 오후 7시, 동관 3층
- 임시교사훈련반 / 매주 화·목, 오후 6시, 본당
- 교사양성부 / 매 주일, 오후 6시 본당

섬기는 훈련이 필요

오 수 경

(대학부 4년)

모든 사람은 마음 속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든 하지 못하든 자신의 생각은 어느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나 개인적으로는 이 계속되는 생각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머무르게 하기를 원했다. 주님을 떠난 생각은 점차적으로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수양회에 참석하기 얼마 전부터 계속 그 문제에 부딪혀 있었다.

그러던 중 조장의 위치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수양회를 통해 크게 느꼈고 이에 더욱 감사한 것은 나에게 의지하려는 것에서 점차 주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나의 생각의 문제도 점차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 조금씩 해결되어 지리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되었다. 저녁집회때의 목사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깨닫기에는 나 자신이 너무도 부족함을 알지만 그러나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문제삼고 싶지는 않다.

한 형제가 목사님의 말씀에는 전부 통하는 맥락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말씀을 들

으면서 연결되는 것에 어리둥절했던 내 모습이 기억난다.

하지만 내가 거의 모르고 무관심했던 면을 발굴하기 보다는 깨닫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조별공부는 적어도 내게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어떤 방법적인 면이 아니라 조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내 생활의 전반적인 면을 다시 돌이켜 보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변화하는 삶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낯선 환경에서 심적인 부담도 있었지만 내 친구 소영이, 수정이, 그리고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나눈 조원들을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본다.

이번 수양회의 주제인 경전에 이르는 많은 연습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섬기는 훈련이 지금 나에게 시급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

□신간안내□

제자 훈련을 통한

현대 기독교 교육

노르만하퍼 지음

이 승구 옮김

국판 · 240면 · 반양장

2,700원 · 정음출판사

절대적인 의미에서 제자란 자신의 전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살기를 의식적으로 원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제자를 어떻게 정의한다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모든 참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점이 보다 넓은 독자층을 영두에 둔, 교육 이론과 실체를 겸하여 다른 책을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이 책을 발간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교육 기초에 관한 과정의 교과서나 부교재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며, 기독교 학교의 교사나 행정가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 교회에서 장년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좋은 교재가 되고 관심있는 부모들을 위한 좋은 도움과 격려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소개된 기독교 교육관계 서적들이 방법론과 교리 일반도로 흘러 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책은 보다 실제적이면서도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인 이론도 다룬 훌륭한 책이다.

늘 지켜주시는 주님

김 은 희

주일이면 우리집이 하루종일 비는 것을 아는 도독인가 보다.

이럴 수가...

장농의 옷가지들이며, 이불이 안방 가득 쌓여 있고, 아이들 방의 서랍, 부엌 싱크대의 구석구석까지 뒤진 자국이 역력하다. 다행히 그날 따라 십원 짜리 동전 하나도 집에 두지 않았다. 십일조가 들어있는 봉투도 그 날은 잊지 않고, 성경책속에 넣어 가지고 교회로 갔었다.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카메라, 목걸이, 반지 등 그래도 값이 나날만한 물건들은 손도 대지 않고, 집만 구석구석과 옷에 붙어있는 안주머니에까지 알뜰히도 뒤졌다. 우리 집을 뒤졌던 도둑은 아마도 현

찰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주일 예배드리고, 교사로 봉사하고 온 날이니 안 믿는 사람들이 알면 말하기 좋아서 뭐라 그럴텐데.

무섭고 떨린 마음을 진정하고 우리 가족은 안방 가득 쌓인 옷더미위에서 서로 서로의 손을 잡고, 정성을 다해 찬송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었다.

“하나님! 오늘 밤도 지켜 주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이들이랑 드렸던 이 기도가 이제는 정말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가정의 기도가 되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욕심 많은 교사

천 혜 정

내가 처음 유치부 교사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대심방이 되어 심방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태산같았다. 지금도 그 때 일을 기억해보면 심방중에 주일학교때의 나의 선생님께서 나를 먼저 알아 보셔서 너무나 죄송했던 일, 동생같이 사랑해 주시던 학부형님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열심히 아이를 보내 주시며 먹을 싸 주시는 등 많이 많이 사랑받은 일들 뿐이다.

난 항상 그대로 발전없이 있는 것 같은데 불쑥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에게 해 주고 싶은 것도 많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 하나 하나를 기억하고, 지켜 보아 주고, 기도해 주고 싶고 그들의 질문에 소홀함이 없이 대답해 주고 싶고 교회까지 못 나오는 아이들에게 날라가서라도 데리고 오고 싶고..... 정말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 이런 것을 보아 나는 아무래도 욕심많은 교사인 것 같다.

그들중 한명도 빠짐없이 다윗의 용맹, 솔로몬의

지혜, 요셉의 인내와 믿음, 이삭의 온순함, 사울의 늑름함, 에스더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지닌 귀한 아들과 딸로 자라나길 바란다.

그저 아이들이 좋아서 겁없이 시작한 교사지만 점점 그들에게 인간적 사랑 이상의 그 무엇을 주려고 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렵고 자신이 없어지기만 한다.

내 수첩에 아이들의 이름이 차고 넘쳐도 좋으니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건강과 믿음이 내게 있기를 바라며 나 자신을 다 퍼내 주어 빈 그릇으로 남고 그 곳에 우리 주님이 날 뜨겁게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체험이 차고 넘치길 바라며 오늘도 나는 기도한다.

“주님!

당신이 날 사랑하여 주시지 않고는, 그 사랑의 잔이 차고 넘치지 않고서는 난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저에게 바로 사랑할 분별력을 주십시오”



조 영길 목사

(제3교구 담당 소망부 지도)

지혜가 주장하는 교회

지금 까지 「교회다운 교회상」에 대하여 '아브람 교회'(본지 83년 12월호)와 '아들람 교회'(본지 84년 1월호)를 통하여 성경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았고 이번 호에는 잠언서에서 '지혜가 주장하는 교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혜"란 말씀부터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한다. 구약성경의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智慧書) 혹은 지혜문학(智慧文學, Wisdom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라고 하며 그 중에서도 잠언서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유대 랍비들의 기록인 탈무드(Talmud)에서는 잠언과 전도서를 합하여 "지혜의 책"(Sepel hackmah, Wisdom books)이라고 하였다. 이같은 지혜서에서는 특별히 "지혜"(Hackmah)란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이같은 "하크마" 즉 지혜란 말씀은 하캄(Hackam)에서 온 말이다. 그 뜻은 '지혜롭다' (to be wise), '지혜롭게 되다' (to become wise), '튼튼하다, 확고하다' (to be firm)라는 뜻이다. 구약 지혜서와 히브리 사상에서 보는 "하크마"(지혜)는 신학적이고도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존재하면서 창조사역에 협조하면서 지상의 모든 권위의 기원이 되는 위대한 존재로서 인격화되어 있다. 단순한 철학적인 능통이나 사물에 대한 지식의 세속적 진보를 의미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 이상의 무엇

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잠 8 : 1 ~ 9 : 6). 잠언 8 : 23 ~ 31에 나타난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현현에 대한 사상과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에 대한 예견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지혜"(하크마)는 신약의 "말씀"(로고스)과 상통한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지혜관과 사도 요한의 말씀관은 같은 것이다.

요한 1 : 1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즉 로고스(Logos)는 바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솔로몬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하크마(Hackmah)도 역시 화육(化肉)하여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바울은 고전 1 : 30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하였다. 학자 헨리태·시·미어즈(Henry T. C. Mearns)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분이 잠언서를 읽을 때에 '지혜'란 말 대신에 「그리스도」란 말을 넣어 읽어보라 여러분은 놀라운 힘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잠언의 「지혜」는 곧 성육신하신 신약의 「말씀」임을 알아야 한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찾아오셨다. (눅 24 : 27)"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구약 지혜서에 나오는 "지혜(하크마)"는 바로 신약의 "말씀(로고스)"과 같이 예수님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잠 9 : 1 ~ 6에 "지혜가 주장하는 교회"란 바로 "예수님이 주장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요 (마 17 : 18)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요 (행 20 : 28) 예수님의 몸된 교회(엡 1 : 28)

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다운 교회는 :

1. 예수님이 지으시는

교회이다

성경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라고 한 것처럼 참된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친히 지으시는 것이다.

마태 16 :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며 결코 음부나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되신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몸되신 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이요 권능과 축복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친히 지으신 교회는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고 교회를 사이로 왕래하시며 돌보시는 것이다(계 2 : 1) 따라서 교회다운 교회는 결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맡겨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완전하고 견고한

교회이다

말씀에 "일곱 기둥을 다듬고"라고 하였다. 이것은 일곱기둥을 세우는 교회를 말하는 데 여기서 일곱기둥은 네모퉁이에 하나씩 그리고 나머지 셋은 삼면의 중앙에 있는 형태의 건물구조이다. 물론 여기서 일곱기둥이란 것은 문

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뜻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견고성과 완전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일곱」은 완전수를 말하며 언약의 수이며 조화와 일치를 뜻하며 신성함과 축복의 수인 동시에 안식의 수이기도 하다. 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일곱 교회로 말씀하고 있다(계 1 : 4) 결국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완전하며 만민에게 하나님께의 해와 생명의 떡과 참된 안식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이다. 그러므로 결코 흔들리거나 퇴보하지 아니한다. 학자 딘(W.J. Deane)은 「일곱 기둥을 다듬어 세웠다」는 말의 의미를 “예수님의 ① 탄생 ② 공생애 ③ 고난 ④ 죽음 ⑤ 부활 ⑥ 승천 ⑦ 제림에의 약속으로 보았다”는 사실은 은혜로운 고찰이라고 하겠다. 예루살렘 성전에 야긴(저가 세우리라)과 보아스(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두 숫기둥이 있었던 것같이 신약 교회의 신령한 일곱기둥은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다.

3. 풍성한 양식이 준비된 교회이다

본문 2절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고 하였다. 이 말씀은 참된 교회는 굶주린 영혼들이 와서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과 음료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말한다. 교회다운 교회는 언제나 굶주리고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서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마실 수가 있어야만 한다. 짐승을 잡았다는 말씀은 유월절양 예수님의 대속사를 뜻하고(고전 5 : 7), 포도주를 혼합하였다는 말씀은 본래 혼합하지 않은 술은 너무나 독해서 마실 수가 없어 물을 적당히 섞는다고 한다. 신령한 의미로는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제리그마)을 역사적 서술과 영적인 의미를 찾아 그 말씀이 주는 본래적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강해와 강론을 뜻한다. 그리고 상을 갖추었다는 말씀은 생명의 떡과 양식이 항상 넉넉히 준비되어 있는 교회를 뜻한다.

주님의 교회는 생명의 떡인 말씀이 언제나 풍성하여 누구든지 와서 배불리 먹고 마시도록 해야 한다.

말씀이 빈약한 강단, 말씀이 풍성치 못한 교회는 발전할 수가 없고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굶주린 영혼은 언제나 교회에 나아와서 말씀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실 때 동시에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한다(요 6 : 53-57)

4. 전도하는 교회이다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아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3-6)고 하였다.

집도 크게 지었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였으니 이제 남은 것은 많은 손님들을 청하여 모시고 그들로 하여금 준비한 식물을 대접하는 일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것은 교회의 기능이고 사명이기도 하다. 따라서 많은 백성들을 주님의 집으로 청하여 들이는데는 먼저 믿은 주의 일꾼들이 밖으로 나가서 열심으로 전도하여야 한다. 그것도 성중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쳐라고 하였다.

열심히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 먼저 믿은 성도들은 누구나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꼭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여 “전도”라는 방법으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고전 1 : 21, 딤후 1 : 3) 무엇보다 먼저 가정의 식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내 이웃을 교회로 초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다. (시 14 : 1)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전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내 민족, 내 나라가 복음화되고, 우리의 숙원인 통일도 성취하며 세계를 향하여 할

있게 선교할 수가 있는 것이다.

5. 생명을 얻게하는 교회이다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게하는 것이다”(본문 6절) 즉 교회운동은 생명운동이다. 신앙 운동과 전도(선교)운동도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얻게 하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만 한다. 노아가 고생하면서 방주를 지은 이유는 홍수심판으로 부터 가족을 구원하는데 있었다. 그러므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찾아오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며 교양 강하나 교제와 위로와 구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운동에 주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심방 그리고 다른 모든 사업도 결국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일에 그 목적을 맞추어야 한다. 교회에 나아오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게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야말로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주고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가 있겠는가? (마 16 : 26) 생명의 복이야말로 제일 큰 복인 것이다. 누구든지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원히 사는 참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성과 같이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요 참 교회이다.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모든 교회들은 온전히 지혜가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 된 교회를 지으시고 일곱 기둥을 세우시고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여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다같이 힘쓰며 기도하여야 하겠다. (*)

“해외 선교지 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 1월 6일 인도네시아 선교부 파송 제20번 까르노 전도사가 개척하는 세다유 지역 레박교회의 건축을 마치고 헌당식 예배를 드림.
- 오지개척지역 현황으로 장년 31명과 어린이 13명이 결신함.

〈기도제목〉

- 인도네시아의 원주민 사역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길
- 특별히 선교사내외분의 건강을 위하여

애굽(이준교 선교사)

- 1월 2일 애굽 복음주의 교단 원로목사로서 병환중에 있는 미시리키 목사를 방문, 위하여 기도드림
- 1월 14일 애굽 카토릭 신학교를 방문, 학생들에게 한국교회에 대한 소개를 함.
- 1월 18일 카이로 한인교회 1월 정기기도회 및 성경공부 모임을 가짐.

〈기도제목〉

- 카이로 현장교회 그리고 포트 사이드 가정교회 및 애굽 현지 선교를 위하여
- 카이로 한인교회와 애굽 선교를 위하여
- 특별히 석신군과 석현군의 학업을 위해

벨지움(김성완 선교사)

- 매주 화요일마다 실시하던 성

경공부 장소를 교회에서 각 가정으로 바꾸어 자원하는 가정마다 다니며 새롭게 진행함.

- 주일 예배전 성경공부도 계속 20-30명 이상이 회집되고 있으며 성경통신도 배주 20명에게 분배함.
- 본부로 부터 접수한 성력 230부를 각 기관 및 교인들에게 배포함.
- '83년 성탄 예배시 구제헌금을 자원실시하여 한국 거제도에 광원(정박아수용원)과 다미엔 사회 복지회(나환자 복지시설)에 구제활동을 함.

〈기도제목〉

- 배주 실시하고 있는 성경공부를 위하여
- 어떠한 환경속에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와 새 교우들을 위해
- 김선교사에게 지혜와 능력이 더하시며 현지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 자체의 교회당구입과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서독(육호기 선교사)

- 1월 13일-14일 지겐 빌든스도르프 수양관에서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제1회 재직수련회를 가짐.
- 1월 22일(주일) 비스바덴 교회에서 추기 성례식을 거행함. 학습자 1명, 세례자 3명, 유아세례 7명임.

- 1월 23일~25일 파리 장로교에서 시무하던 구의병 목사와 독일 카이저 슐라우턴 한인교회에서 시무하던 김경원 목사를 방문, 담화를 가짐.

〈기도제목〉

- 많은 눈과 이상가온으로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 장녀 해진이가 병환에 넘어져 2주간 입원하고 퇴원하였으나 빠른 안정과 완쾌를 위해

칠레(유재일 선교사)

- 1월 11일 칠레인을 위한 세례문답지 500부를 인쇄함.
- 1월 17일 칠레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총회를 개최하고 반편성 및 교재를 분배함.
- 1월 23일 칠레 성서공회를 방문, 문서 선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
- 1월 29일 칠레 1교이원 주일학교에 신, 구약 성경 40권, 찬송가 40권을 보급함.

〈기도제목〉

- 칠레의 선교사역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길
- 칠레 한인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 1월 1일 신년 부흥 성회와 사명자 단기 교육을 실시함.

- 1월10일-14일 71명의 신년 특별 노인 심방을 함.
- 1월23일-27일 연합교사 강습회를 인도함.
- 1월30일-2월1일 고등부 하기 수양회를 인도함.

〈기도제목〉

- 교회 부흥과 원주민 선교사업을 위해
- 경제회복과 교회 증축을 위해
-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일본 (유병세 선교사)

- 1월1일 포하, 원포하, 호로이즈미 3 교회의 합동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가짐.
- 1월2일 교포 의사 5 가족의 모임에서 기도와 말씀을 증거함.
- 호로이즈미 히로오교회에서 낙농 실습생 7명 및 오오끼 교회와 함께 합동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나눔.

〈기도제목〉

- 의료전도를 위해 더욱 능력을 주시도록
- 육의 병을 치료함과 함께 영혼 구원도 이루어지고, 육은 죽을

지라도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선교사 내외의 영육이 경건하기를

리성충현교회

- 탈사충현교회(강성진 목사 시무)로 부터 신년 월력 25부를 받아 교인들에게 배부함.
- 라성 충현교회가 계속 하나님은혜 가운데 부흥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84년부터 교포 2 세의 기독교 교육에 보다 역점을 기울여서 교회가 교육부를 지원키로 결정함.
-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봉사 활동의 기회를 열어 권장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남·여전도회및 청년회를 조직하기로 함.

〈기도제목〉

- 정상우 목사의 빠른 수속을 위하여
- 라성 충현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하여
- 김영휘 목사의 목회와 학업을 위하여

본부소식

- 1월12일 대구 서문교회의 선교회 임원진들이 본 선교회를 방문. 선교지의 사업에 관해 담화를 가짐.
- 제10회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1월 25일(수) 홍해 선교회의 거니막사를 초빙, 수요일특별집회를 가짐.
- 1월29일 선교주일에는 선교주일 행사와 함께 각 주일학교 선교공과 교재를 만들어 특별히 선교에 관한 공부를 하였으며, 각 선교지의 선교사와 주소록이 실린 선교회 팸플렛을 제작, 배포함.

〈공동기도 제목〉

- 모든 선교사 내외분과 그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 모든 선교사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안에서 많은 결실이 있도록
- 원주민 선교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다 많은 결신자가 나타나도록
- 선교지 교회들의 부흥과 교우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우리 충현의 선교사

1984년 2월 현재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서독/육호기 선교사



애굽/이준교 선교사



인도/엘리아 겔간 선교사



피리과이/김재창 선교사



질레/유재일 선교사



백지움/김성완 선교사



일본/유병세 평신도선교사



홍궁/이만렐 선교사



마카오/염영택 선교사

교회 소식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 3 회 충현세계선교세미나 열려

충현세계선교회(회장 한정일 장로)가 주최한 제 3 회 충현세계선교세미나가 지난 2월 20일, 21일에 걸쳐 본당과 유년부실에서 열렸다.

수년 전부터 본교회 선교회가 매년 1월마다 실시해온 선교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세미나는 해외선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선교의식의 고취로 선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함과 동시에 3년 전부터는 선교후보자에 지망자를 위한 특별한 교육의 일환으로 선교세미나를 실시해 오고 있다.

특별히 제 3 회 선교세미나를 위하여는 O. M. F.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의 국제본부 해외담당 총무인 영국인 데니스 레인 목사(Rev. Denis Lane)가 초청되어 첫날은 '성경적선교형태', 둘째날은 '중공의 선교방향'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였다.

연인원 300여명이 이번 세미나에 참가하여 다시한번 선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하였는데 1968년 해외선교회가 조직된 이래 우리교회는 해외선교사업에 주력해 오고 있으며 또한 교회 목표의 하나로 되어있다.

현재 9개국에 10명의 선교사(평신도 선교사 1명 포함)가 파송되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16:15) 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땀과 피와 눈물을 아낌 없이 쏟고 있다.

온 교회는 선교현장에서 땀흘려 수고하는 이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하겠고 또한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2월말 현재 선교회원 수는 1,150여명이다.

'84년도 단기 수련회

1984년도 교역자 장로를 비롯하여 직원 및 각기 임무를 맡은 분들을 위한 단기수련회가 "성숙

한 성도 성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 2일 부터 1월 13일 사이에 본교회당에서 실시되었다.

해마다 1월에 실시하는 이 수

련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일터와 봉사할 기회를 갖게된 것을 감사하며 각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모임이다.

특별히 새성전건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등 5대 목표에 기일층 힘을 기울여야 할 올해로서는 더욱 의미있는 수련회였다.

참고로 각 반별 교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역자 장로: 84년도 목회방침, 교회 성장에 있어서의 교역자와 장로의 역할.

직원: 84년 교회중요사업방향, 직원의 직무와 사명.

제직 및 권찰: 84년도 구역 개편조직과 그 운영, 제직 및 권찰의 직무와 실제 효과적인 구역성경공부.

주교교사: 84년도 교육위원회의 운영방향과 목적 피학생자에 대한 이해, 한국교회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안.

성가대: 84년도 성가대 운영계획, 한국찬송가 변천사, Choral Workshop.

전도회 임원: 84년 전도위원회 의 방향, 전도자의 사명과 실제.

회계: 교회재정과 회계실무.

대예배시 교구별 봉사

2월부터는 대예배시 헌금 및 안내 담당 봉사를 종전에 제직회원들이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봉사하던 것과는 달리 10개 교구중 5개 교구에서 두 달씩 분담하여 봉사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교구분담봉사는 각 교구 성도들 간의 유대 강화와 영적 질적 교구활성화를 위하여 계획되어졌으며 2월, 3월 중 봉사담당교구는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및 10교구이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열심있는 봉사가 기대된다.

의료전도단 설립총회

- 전도위원회 산하에, 본교회 의료인들로 -

육신의 병든 자를 위한 무료진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전도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펴나가기 위한 전도위원회 산하 의료전도단 설립총회가 지난 2월 12일 2부 예배 후 전도위원회실에서 있었다.

본교회 등록한 모든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원, 기타 의료분야 종사자) 및 관심 있는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이날 설립총회는 전도위원장 장정일 목사의 사회와 설교로 예배를 드린 후 이어 설립총회가 진행되었는데 이갑제 집사의 설립총회 보고에 이어 회칙통과, 임원선거, 사업 및 예산안 통과 순으로 진행되었다.

초대 의료전도단 단장에는 홍중섭 장로(문화피부과의원)가 선출되었으며 올 예산으로 6,050,000원을 통과시켰다.

현재 의료전도단의 가입자 수는 37명이며 의료관계 종사자 가운데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여 의료봉사를 통한 전도활동과 교회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아울러 온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주교교사 교육

교육위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자질향상과 주일학교 교육방법에 대한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정기적인 과정을 두어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사임명 전 교육은 10여년 전부터 교사양성부(개칭 전에는 지도자양성부)를 두어 책임제 있게 실시하여 왔으나 임명된 현직 교사들에 대한 계속 교육은 교사단 기수련회, 교사철야기도회, 교사특강 등 단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들은 단편적이고 연속적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정기적인 교육과정의 시작을 통해 앞으로 임명된 교사들의 훈련과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로 임명 받은 후의 계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시발이 되고 거름이 될것이다.

교육은 '교사재훈련반'과 '임시교사훈련반' 등 두반으로 나누

어 실시할 계획인데, '교사재훈련반'은 현재 충현교회 주일학교 정교사로 봉사중인 사람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이며, '임시교사훈련반'은 임시교사로 만 2년이상 봉사한 사람으로 매주 화·목 오후 7시부터 각각 실시된다. 개학은 3월 8일부터이며 원서는 성경연구원에서 접수하고 있다.

예배버스 운행

주일 낮예배에 참석하는 재신자들의 교통편의와 올해 우리교회의 양적성장 목표인 '10,000세대, 1,500구역'의 선취를 위해 교회는 지난 2월 첫주부터 5대의 대형버스와 4대의 봉고버스를 교구별로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교구별 배차시간표 및 코스일람표는 각 구역장에게 문의바람)

이것은 주일낮예배 출석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써 그에 따라 주일날 2부예배때만 읍면부설에서 T·V 모니터를 통하여 대예배를 드리던 것을 지난 2월

26일부터는 3부예배시에도 읍면부설에서 T·V 모니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따라서 3부예배시 모이던 소망부 집회시간을 3부예배 후로, 4부예배시 모이던 장년부 집회를 4부예배 후로, 구역공과공부를 오후 6시로 각각 변경 실시하고 있다.

통일찬송가

4월부터 사용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 결실을 보게된 '통일찬송가'를 우리교회에서는 오는 4월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본교회 사무실에서 주일을 제외한 평일에 보급하고 있다. (비닐표지 보급판 1,600원, 가죽표지 금도련 4,500원) 각 구역에서는 3월까지 모두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장학증 수여식

3월 4일 주일저녁예배시에 장학회(회장: 정석태 장로)가 실시하는 1984년 전기 장학증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다.

본교회 목표 중 하나인 '천국 일꾼 양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우리교회는 오래전부터 장학사업을 펴왔는데 올해로 외국 유학생 4명을 포함하여 모든 65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었다.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과거 신학생만을 국한하던 것을 올해 부터는 좀더 확대하여 주일학교 보편학생에게 까지 실시하게 된다. 이같은 장학금은 매 격월 마지막 주일 실시하는 장학현금이 주된 재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교인들은 기도와 함께 장학현금을 위해 특별히 적극협력하여 주기를 장학회에서 부탁하고 있다.

이성근 목사 전임

교회는 지난 1월 15일 임시 당회에서 그간 본교회 협동목사로 시무하던 이성근 목사를 본교회 문서선교사로 전임하여 부목사로 시무토록 결의하였다. 이성근 목사는 특별히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설교집과 강해집 발행을 위한 모든 준비와 진행을 담당하게 되며 아울러 '월간충현' 주간으로 수고하고 있다.

장혜순 전도사 부임

지난 1월 31일부로 장혜순 전도사(여, 33세)가 본교회 주일학교 직장교육부 부지도로 부임하였다. 전임 유순화 전도사의 후임으로

부임한 장 전도사는 부산 남성여고를 거쳐 총신대사학부 여교역자 연수원을 졸업하였고 우리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부산 부광교회 교육전도사로 시무하였다.

직원 인사이동

당회는 교회 조직개편과 새성전 이전을 앞둔 교회행정 보강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정기당회에서 교회 사무직에 대한 신규채용 및 인사이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인사이동-박창수 장로(동산관리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회계 겸직), 이대길 집사(구역권찰회 간사), 문영화 집사(도서실 담당), 최은미(기획조정실), 육미숙(성

경연구원), 최윤선(기획조정실 홍보출판부)

신규채용-고병욱 장로(기도원), 노경모 집사(전도위원회), 백한기(기획조정실), 전승훈·윤경숙·홍지향(기획조정실 홍보출판부)

'84년도 신학교

입학자

본교회 교인으로서 올해 신학원 및 신학대학 입학자는 모두 9명으로서 다음과 같다. 박용삼, 신평근, 이조웅, 안명수, 문상무(이상 5명은 총신 신학원), 강승민, 오성순(이상 2명은 총신 대학교), 한득순(칼빈 신학원), 현홍식(대한 신학교), 이로서 2월 현재 본교회 교인으로, 신학원 및 신학대학 재학생은 모두 37명에 이른다. (교육위원회 조사)

충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버스편

• 매일 오전 9시 30분, 오후 7시 (토요일제외)

• 매주 수요일에 배후 9시에 교회 앞에서 출발

• 차량운행코스: 충현교회→신사동국민은행앞→영동시장 (대한투신)→삼일자동차(새성전앞)→잠실배거리→송파→성남모란시장(시외버스정류장)→기도원.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여주·이천방면 완행버스를 (20분 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 하차)하여 광주행 3번을 타고(광주에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초월면사무소 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3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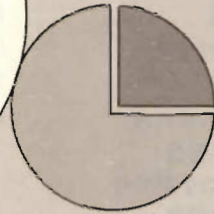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13472-2-4425

각종통계 1984. 2. 5 (매월 첫주 기준)

구		분	남	여	계						
예	주 일 낮	1 부	130	250	380						
		2 부	490	970	1,460						
		3 부	490	990	1,480	총 세대수 4,636					
		4 부	240	450	690						
		5 부	210	480	690						
배	주 일 저 녁	200	370	570	교 인 총 수	남	여	계	4,213		
	삼 일 저 녁	130	320	450		남	여	계	6,439		
	영 아 부	166	151	317		남	여	계	10,662		
주 일 학교	유 치 부	135	139	272	신 급 별 교 인 현 황	세 래 입 교	남	여	남	2,467	
	유 년 부	123	104	227			남	여	남	3,890	
	초 등 부	108	118	226		남	여	남	596		
	소 년 부	152	142	294		남	여	남	490		
	중 등 부	160	183	343		남	여	남	1,086		
	고 등 부	157	135	310		남	여	남	317		
	대 학 부	72	95	167		남	여	남	469		
	청 년 부	55	84	139		남	여	남	786		
	중 년 부	30	75	105		남	여	남	1,193		
	장 년 부	48	357	405		남	여	남	1,590		
교회	소 망 부	47	132	179	원 입 교 인		남	여	남	계	2,783
	직 장 전 도 교 육 부	20	53	73							
	새 가 정 부	22	40	62							
	장 년 새 신 자 부	38	92	130							
세	레 부	40	111	151							
	합	계	3,263	5,859	9,122						

1월의 교우동정



새 교우

● 1 교구

진달래구역 이춘미 개포구역 김갑동
역삼7구역 김태섭 역삼4구역 김귀향
동신구역 홍효선

● 2 교구

신사1구역 함윤경 성남구역 정순이
방배구역 강기태

● 3 교구

사당3구역 김승진 이태원구역 송선월

● 4 교구

임리구역 정순옥 성산2구역 현명철
임리구역 곽정자

● 5 교구

벽제구역 박민수 응봉1구역 박재관
북아현구역 홍영득 용강구역 나승영
홍제1구역 손정혜 북가좌구역 김순복

● 6 교구

반동구역 장준환 쌍문1-2구역 박명호
공릉구역 권근수 쌍문1-2구역 박용수
쌍문8구역 윤병조 수유2구역

● 7 교구

명륜구역 권정기 구리구역 천운우

● 8 교구

대흥구역 배재복

● 9 교구

성수2구역 조수남 금호4구역 장커너
홍익1구역 김유준

● 10 교구

하왕2구역 박선희 신당A구역 윤키완
남장구역 강선연 오장2구역 이영준
중부구역 이영준 행당3구역 이윤준
신당A구역 최은자

결혼

- 이신호군(강숙렬권사 아들)과 최경희 양 1월9일
- 최진군(김영옥권사 아들) 차홍숙양 1월 11일
- 최황군과 조순애양(화곡구역) 1월21일
- 전세현군과 김정은양(진양구역, 김용복씨 전순임집사 딸) 1월 28일

별세

- 이새득씨(구의3구역, 이동명 집사 부친) 1월 5일
- 최영환씨(최장남·양승남집사 부친) 1월 11일
- 임창호씨(장미구역) 1월 11일
- 김성온씨(길음구역) 1월 11일
- 김복실양(김천임권장 딸) 1월 12일
- 장병채집사(상계1구역) 1월 12일 4
- 전봉희씨(부암구역) 1월 23일
- 이순자권사(상도구역) 1월 25일
- 안정애집사(면목2구역, 오인근 집사 부인) 1월 30일



새로 나온 교우는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시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학습」을 받으신 사람은 세례부에 가셔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장년새신자부의 집회시간은 12시이며 장소는 새신자부실에서, 세례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1월호 정정란

- P3 차례란에 4열에 '이달의 말씀/김창인/계속하여 은혜받는 교회'를 삽입
- P7 좌상. 장학위원회 재해구상→ 장학회 재해구상
- P7 인물소개. 장학회위원장→ 장학회장
- P15장단5행. 수석부목사 구역권좌회→수석부목사 구역권좌회장

3월의 행사

□ 당 회

2 일 / 정기당회

□ 제직회

4 일 / 정기제직회

□ 기획조정실

18일 / 월간충현발행

□ 구역권찰회

3 일 / 권찰훈련

18일 / 1 ~ 5 교구월례회

25일 / 6 ~ 10교구월례회

□ 예배위원회

25일 / 남전도회헌신예배

□ 전도위원회

4 일 / 에스더연합회의

한나연합회의

6 일 / 학원전도전략세미나

8 일 / 한나월례회의

11일 / 제1,2,3 남전도회 월례회

15일 / 에스더월례회의

18일 / 의료전도단회의

25일 / 전도위원회월례회

남전도회협의회

□ 북한선교위원회

27일 ~ 3월 2일 / 3.1절 구국성회

□ 교육위원회

4 일 / 교사양성부개강

8 일 / 교사재훈련개강

내 마음밭에 무엇을 심었는지 그 씨
는 자라게 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된
다. 미움을 심은자는 미움의 열매를,
사랑을 심은자는 사랑의 열매를 거두



는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수 없는 진리
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엉덩이를 심어 놓고 좋은
결과만을 기다리는 우리였다. 무엇을 심든지 그 씨
는 생명체인 이상 여러조건의 구비와 함께 자라게
되어 있어서 미움의 씨앗은 미움대로 자라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 열정난비극
은 역사의 흐름과 함께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
속될 것이다. 악은 악대로 성장하고 선은 또한 선대

로 성장하지만 언제나 악이 선을 이기
지는 못한다. 월간충현은 선한열매를
심어서 그 열매를 바로 성장케 하는
사명을 계속 담당하여야 할것이다. 주
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자 말씀하셨으니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올
해가 조지 오웰의 1984년임과 동시에 한국교회의
100주년의 해임을 감안할때 악령의 최대 활동시기
임과 동시에 성령의 크신 역사하심이 기대되는 해
이다. 우리의 기본자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알미압아 넉넉히 이긴다는 전제이다.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터를 굳게 잡고 1984년을 복
된 은총의 해를 만드는 역군이 되자.

표지의 말

초대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가
정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혈육으로 맺어진 가정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믿음의
형제들의 관계도 못지 않게 긴밀
하다. 믿음의 형제는 주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다고 하지 않았
는가.

구역(가정교회라고 부를 수 있
다면)을 통한 교회야말로 진실
로 반석위에 굳게 서는 교회성장
의 모체가 될 것이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편집위원

정 상 우	조 현 명
장 정 일	이 형 수
김 수 성	

월간 충현

1984년 2월호

제12권 제 2호 (통권 118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4년 2월 27일 인쇄

1984년 2월 29일 발행

발행인/김창인

편집인/최석주

주관/이성근

홍보출판부장/김광선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 02-□□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36

전화 / 274-2171·2172

1984년 총현교회 교역자



김창인 목사



정상우 목사



장정일 목사



김원남 목사



이성근 목사



한영철 목사



조영길 목사



김창근 목사



이세얼 목사



김수성 목사



김영구 목사



조준상 목사



오치용 목사



최봉호 목사



박동실 목사



유국남 목사



이양우 목사



안석렬 목사



김동렬 목사



이원길 목사



김희보 목사



윤영탁 목사



신성종 목사



정은표 강도사



윤태곤 강도사



김장근 강도사



김성주 강도사



정관호 강도사



이두란 전도사



최순복 전도사

1984년 총현교회 교역자



구명신 전도사



김경성 전도사



장언희 전도사



장소영 전도사



현정남 전도사



장복인 전도사



장영자 전도사



이진희 전도사



유순화 전도사



김언이 전도사



임태주 전도사



김익경 전도사



윤용규 전도사



김성운 전도사



남창우 전도사



김양래 전도사



김오용 전도사



오테용 전도사



김주경 전도사



유희섭 전도사



김정자 전도사



이성운 전도사



하영자 전도사



장혜순 전도사



김정순 전도사



장금숙 전도사



이승근 유학목사



김영휘 유학목사



성주진 유학전도사



김연순 전도사



박현모 전도사